



지난 달 1일, '중국국제전람중심'에서 열린 2005북경국제도서전. 규모나 내용에서 진일보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5 북경국제도서전

중국출판의 무한한 잠재력을 깨워라!

각국 출판인들의 분주한 교류 마당

현지인들, 한국 도서 디자인·일러스트 수준에 큰 관심

지난 달 1일부터 닷새동안 중국 베이징에서 치러진 2005북경국제도서전은 세계 출판시장의 또다른 지형 변화의 가능성을 엿보게 한 '사건'이었다. 중국은 진작부터 세계 최대 출판시장의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개최된 베이징 '중국국제전람중심'에서 열린 2005북경국제도서전은 예년보다 더욱 큰 관심을 불러 모았으며, 그 규모나 내용에서도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도서전에는 한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권 국가와 멕시코, 호주, 독일, 에스파냐, 스칸디나비아, 스페인,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등도 대거 참여했다. 아랍권 국가의 출판사들은 두드러진 활동을 펼치지지는 못했지만 자국의 도서를 알리고 관람객을 맞이할

이는 것으로도 만족하는 분위기였다.

도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날인 31일 저녁부터 분위기는 고조됐다. 이날 천안문 광장 앞에 위치한 인민대회당에서 개막 리셉션이 열렸으며, 입장을 위해 철저한 검색을 거쳐야 하는 연회장에는 5,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탁들과 뷔페가 마련돼 있었다. 이번 도서전의 주최국인 중국과 주빈국인 프랑스는 각국의 출판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도서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선언문을 낭독해 나갔다. 행사는 중국어와 프랑스어만으로 진행됐으며 정확히 한 시간 반만에 종료됐다.

북경도서전 전시장은 모두 3층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층

별로 양쪽에 두 곳의 전시장을 두고 있었다. 그 크기는 서울국제 도서전이 치러졌던 코엑스 전시장보다 약 만 오천 평이 넓은 규모다. 전시장은 개막 첫날 오전부터 관람객들로 북적이며 중국출판 시장을 열기 위한 각국 출판인들의 빠른 발길이 이어졌다.

한국관, 전통적이고 '모던 한 이미지의 합성'... 이동·교육도서 주목받아
한국관은 전시장 2층,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2005프랑크푸르트 주빈국 이미지를 주제로 한 한국관 데스크가 마련돼 있고, 그 뒤로 한국관 부스가 자리했다. 개별 참가사 18개사, 종합전시 출판사 27개사로 지난해보다 12부스가 늘어난 46부스가 설치됐다.

전시장엔 카펫이 깔려 있었으나, 한국관은 각 부스마다 원목재의 바닥을 마련, 독자적인 특징을 살렸다. 고유의 태극무늬와 'KOREA'를 강조해 특유의 세련됨과 단아함도 강조했다.

지난 2000년부터 불기 시작한 한류 영향으로 우리나라 출판산업은 중국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올해도 한국 도서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은 상당한 수준이었다. 그 중 아동도서를 다루는 출판사 부스에서는 각종 상담활동이 무척 활발히 진행됐다. 한 아동도서 출판사 관계자는 “작년 도서전에서는 귀여니 소설과 같은 하이틴소설이 주목을 받았다”며 “그런 양상이 올해에도 이어지는 가운데, 차츰 어린이·교육도서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 떠들썩하지는 않았으나 국내의 새로운 도서를 소개하고 중국의 급변하는 출판 트렌드를 접하는 등 장기적 측면에서 그 성과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예림당의 김대원 대리는 “중국과 대만 등지에서는 한국의 우수한 일러스트 때문에 그림책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대체로 국내에서 인기 있었던 도서가 현지에서도 관심을 끈다”고 말했다. 또 날로 팽창하는 중국시장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 다양한 콘셉트와 창의적인 기획이 돋보이는 도서를 출간하기 위한 국내 출판사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다양하고 화려한 부스 인테리어 돋보여... 각국 저작권 상담 활발

이번 2005북경국제도서전은 부스 인테리어 수준에서도 예년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는게 참가자들의 반응이다. 주빈국인 프랑스는 부스 설치대신, 원목자재의 책꽂이를 직접 들여와 설치하는 등 깔끔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내는 한편, 저작권 상담을 위한 장소를 넓게 마련해 각국의 출판 관계자들이 불편함 없이 상담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프랑스는 이번 도서전의 주빈국인 만큼 전시기간 내내 사람들로 북적이며 저작권 상담에 여념이 없었다.

주최국인 중국관은 출판사마다 나름의 개성을 부각시키며 각각의 부스를 화려하면서도 다양하게 연출했다. 특히 붉은색을 기조로 한 중국적 이미지를 살린 점이 눈에 띄었다. 서울국제 도서전이 대부분 획일적인 레이아웃에 치중한다는 평가를 받고



올해 주빈국 행사를 가졌던 프랑스크관. 주빈국인 만큼 널찍한 장소를 마련해 저작권 상담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있는데 비해, 이번 북경도서전은 공간 제약 없이 다양한 자재와 도구를 사용한 점이 대조를 이뤘다. 중국의 한 대학출판사는 파란색 투명 아크릴을 이용해 시원하면서도 화려한 전시부스를 꾸몄고, 이벤트 공간을 두어 책과 관련한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 출판사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부스마다 저작권 상담을 위한 자리를 대폭 확대, 전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진열된 책을 감상하거나 상담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했다.

한국관과 같은 전시장에 위치한 일본관에서는 만화를 필두로 한 각종 도서들이 선보였다. 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일본의 만화시장은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또한 '장수 만화' 출판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전시장에서선 콘텐츠와 소재의 다양함과 우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일본만화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았다.

중국에서도 '해리포터 시리즈' 인기는 높았다. 전시장 1층에도 해리포터 분장과 거대한 책 모양을 뒤집어 쓴 홍보요원들이 있었고, 해리포터를 출간한 중국의 한 출판사는 해리포터 관련



고유의 태극무늬와 'KOREA'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던 한국관.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한편, 관련 이벤트를 진행해나갔다. 미국의 하퍼콜린스Harcourt출판사는 올해 말 국내 영화개봉이 예정돼 있는 판타지 《The Chronicles of Narnia 나니아 연대기》로 이목을 끌었다. 《반지의 제왕》《어스시의 마법사》와 함께 판타지 소설의 3대 고전으로 꼽히는 만큼 그 원작소설의 출판저작권을 둘러싼 상담도 활발했다.

이미 중국출판사와 에이전시 등 40곳과 수출계약을 진행한 랜덤하우스중앙은 이번 도서전에도 수출을 염두에 두고 참가했다. 박지영 씨는 “경제·경영, 자기계발서, 육아·교육, 판타지 만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7월에 출간한 《친절한 금자씨》는 대장금으로 인한 ‘이영애 효과’ 덕을 톡톡히 본 경우”라고 설명한다. 문학동네어린이도 창작동화에 대한 계약상담을 도서전이 끝난 다음에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염현숙 편집장은 “학습만화도 큰 주목을 끌었지만 디자인과 장정 등 비주요적인 면이 돋보이는 창작동화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다”고 말했다.

랜덤하우스중앙의 수출도서 분야가 보여주듯, 중국이 한

국도서에 가지는 관심의 분야는 다양하다. 특히 그림책은 현재의 관심 만큼이나 앞으로도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다. 한 출판인은 “앞으로는 아동도서든 성인도서든, 한국과 중국이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와 '같이면서 다른' 중국의 서점 풍경

1980년대 개방정책 이후 매년 12퍼센트 이상의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 출판산업의 원동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서울의 명동과도 같은 쇼핑거리인 왕푸징의 서점과 중국에서도 손꼽히는 도서쇼핑몰인 북경도서대학에서 그 답을 찾을 만 하다.

중국의 서점은 우리나라보다는 아직 수준이 떨어진 듯한 인상이다. 우리나라 물류창고에서나 볼 수 있는 비닐로 만든, 일명 ‘문어발’ 출입문이 인상적인 이곳 ‘왕푸징’ 서점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특이한 것은 판매대에 진열된 책 모양이다. 펼친 부채모양, 퍼즐모양 등 두껍게 쌓은 책들이 저마다 기이한 모양으로 진열돼 있어, 단순히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기보단, 시각적인 이미지를 중시하는 중국인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우리나라 대형 서점이 단층으로 넓게 구성돼 있는 것과는 달리, 중국 서점은 보통 3, 4층으로 나뉘어져 있는 게 대부분이다. 게다가 도서검색시스템도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아 원하는 책을 찾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법 하다. 다만 도서 종수가 많은 만큼 그 분류가 매우 상세하게 돼있다. 스포츠만 하더라도 보디빌딩, 킥복싱, 쿵푸, 축구, 스포츠교육, 스포츠백과사전 등 5, 6가지가 족히 넘는 하부사항으로 분류돼있고, 관련 책들이 빼곡히 비치돼 있다. 별다른 검색장치 없이도 책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인가 싶다. 컴퓨터 서적 가운데는 한국 도서를 번역된 것이 더러 눈에 띄었는데, DVD판매대 역시 한국 드라마 중심으로 진열돼 있어 중국 내에 스며든 한류를 실감케한다.

또 다른 서점 ‘도서대학’는 개학이 됐어도, 토요일 오후라 그런지 학생과 직장인, 특히 엄마와 함께 들러 책을 읽는 아이들이 많았다. 각 층을 오가는 에스컬레이터도 줄을 서서 탈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는가 하면, 간이 카트를 끌고 다니며 책을 구입하는 풍경이 사뭇 이색적이기도 하다. **한글**

베이징 | 취재, 사진_홍이현 기자